

“기부는 많을수록 좋아... ‘문화’로 정착돼야”

●문소령 제16대 광주태봉로타리클럽 회장

2013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 계기로 기부 이어와 최근 동구자원봉사센터에 800만원 상당 안전용품 전달

문소령(48·사진) 광주태봉로타리클럽 회장은 지난 2013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을 시작으로 광주 곳곳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당시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던 문 회장은 외식업 경영 컨설팅 모임을 통해 매출액 일부도 기부하는 다른 사장들을 보면서 ‘나도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기부를 시작했다.

문 회장은 22일 “10여년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매출액의 1%를 처음으로 기부했다”며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소회했다.

최근 제16대 광주태봉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2015년부터 태봉로타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클럽 내 꾸러짐 ‘초아의

봉사단’에 가입, 2017-2019년 농촌 의료지원 활동에 손을 보았다. 지역 의료 전문의들과 봉사자들 60여명이 신안, 나주 등을 방문해 미용·음식·의료 봉사 등을 펼쳤다. 문 회장은 총괄기획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소아마비 박멸 등을 목표로 로타리클럽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480만원을 기부했다. 문 회장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 회원들과 함께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2년간 운영해왔다”며 “방문할 때마다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손을 꼭 잡아줬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신 기부로나마 마음을 전해보자 생각했다”며



“소아마비 환자들을 위해 로타리클럽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으로 지난 2018년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도맡았던 ‘일일호프’를 꼽았다.

2018년 로타리클럽 회장이 운영하는 가게를 하루 동안 제공받아 회원들과 직접 안주를 만들고 맥주를 판매해 300만원의 수익을 냈다. 해당 수익금으로 지체장애 가정에 냉장고와 세탁기를 지원했다.

그는 “주변 지인을 통해 지체장애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 대해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회원들과 ‘일일호프’를 추진했다”며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했던 터라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지난 2019년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해 선운중학교에 바다와 관련된 도서 100여권을 지원했으며, 서구청에 한부모 가정 및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500만원 상당의 학용품 세트도 기부했다.

또 최근에는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재난대응훈련팀을 비롯, 산악지역 쓰레기 줍기 봉사, 논산 수해 봉사 등에 참여한 이들을 위해 800만원 상당의 안전화도 전달했다.

문 회장은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때가 많아 기부로나마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었다”며 “기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기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6대 태봉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 임기 1년간 회원들과의 유대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 각각 하는 일이 잘 돼 기부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장은정기자



광주은행, 전남도에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기탁

전남도는 22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으로부터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1천 200개·3억5천만원 상당)를 기탁받았다.

광주은행의 배회감지기 기탁은 치매 어르신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8천800만원을 지원,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300개를 보급한 바 있다.

배회감지기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탑재해 치매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특정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 배회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배회감지기를 기부해준 광주은행에 감사드리다”며 “치매 환자의 안전 보장과 독립성 증진에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남구 효덕동 지사협, ‘복맛이 삼계탕’ 나눔행사

광주 남구 효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효덕동 지사협)는 22일 “지난 20일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4 복맛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효덕동 지사협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효덕동 통장단, 자원봉사캠프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홀몸 어르신들과 경로당에 방문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담긴 김치와 손수 조리한 삼계탕 180인분을 대접했다.

정덕근 효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사협 위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여름철 보양 음식인 삼계탕을 관내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양미숙 효덕동장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정성스럽게 마련한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고 올려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성학기자



동구자원방재단, 호우 피해지역 복구활동 지원

광주 동구자원방재단은 22일 “지난 20일 호우 피해지역인 전북 완주군을 찾아 복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동구자원방재단 소속 15명은 수해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주택 내부 토사물을 제거하는 등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정형조 동구자원방재단장은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서준 단원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피해 입은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정기자

정형조 동구자원방재단장은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서준 단원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피해 입은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정기자



제5기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위촉

전남도는 지난 21일 보성 북재출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제5기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30명을 위촉하고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는 근로·학업 등으로 평일 참석이 어려웠던 단원의 상황을 고려해 주말을 이용한 권역별 간담회를 거쳐 모니터링단의 효용을 이끌었다. 간담회는 모니터링단 위촉장 수여, 5기 모니터링단 운영 방향과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안내, 정책

제안 및 거주에러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2019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5기를 맞이한 전남도 외국인주민 모니터링단은 더 많은 외국인주민에게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 인원을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2년간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과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양시원기자



코레일 전남본부, 신입사원 안전체험교육 실시

한국철도(코레일) 전남본부는 “최근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시행했으며 올해 채용된 신입사원들이 업무에 배치되기 전 추락·끼임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사례를

직접 체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태 코레일 전남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입사원들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은정기자

광주시 산업금융협력관에 김상일씨

광주시는 22일 산업금융협력관으로 김상일 산업은행 수석심사전문위원(1급)을 위촉했다.

김 신임 산업금융협력관은 앞으로 1년간 광주 시 주력산업에 대한 금융정책 자문, 지역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광주시와 산업은행 간 소통 역할을 하며 현안 사업에 대한 금융 관련 자문, 첨단산업·주력산업·전통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지원한다. 또 유망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 혁신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1991년 한국산업은행에 입행한 김 협력관은 기업구조조정부, 서울가산지점장 등을 거쳐 시사2부 수석심사전문위원을 역임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올해 말 호남권 투자금융센터를 광주에 설치해 지역 유망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박성기기자

‘배움의 날’ 대학로 소극장 이끈 김민기 별세



대학로 소극장의 상징 ‘학전’을 30여년간 운영하며 후배 예술인을 배출해 온 가수 김민기(사진)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22일 공연예술계에 따르면 김민기는 전남 지병인 위암 증세가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김민기는 1951년 전북 익산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경기중·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미술에 몰두했던 학생이었던 그는 1969년 서울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한 뒤 붓을 놓고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확실적인 수업 방식에 거부감을 드러낸 그는 1학년 1학기를 마친 뒤 고등학교 동창 김영세와 포크송 듀오 ‘도비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70년 명동 ‘정개구리의 집’에서 공연을 열며 그를 대표하는 곡 ‘아침이슬’을 작곡했다.

양희은이 노래한 ‘아침이슬’은 대학생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1987년 민주항쟁 당시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아침이슬’을 부르며 저항정신을 되새겼다.

실상 고인의 가수 생활은 위암에 맞선 저항의 역사였다. 1971년 발표한 데뷔 음반 ‘김민기’는 출반 직후 압수당했다. ‘꽃 피우는 아이’, ‘늙은 군인의 노래’, ‘상록수’ 등 그의 노래들은 줄줄이 금지곡으로 지정됐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이미영씨와 슬하 2남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24일 발인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익준 도의원, ‘남도장터’ 발전 감사패



전남도의회 신익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사진)이 최근 나주 선텔호텔에서 열린 (재)남도장터 우수상품 품평회에서 남도장터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로 재임하면서 (재)남도장터 설립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여건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신 의원은 “남도장터가 전남 농축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대표 공공형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길 바란다”며 “남도장터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재정기자



순천대, RISE 시범사업 추진 협의체 발족

순천대학교는 “오는 2025년 본격 시행되는 전남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하 RISE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최근 전남 동부권역 대학 및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전남도 동부권역 대학 및 시·군 협의체는 순천대, 광양보건대, 순천제일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청암대, 한영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등 6개 대학 및 7개 시·군이 참여한 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는 전남도 RISE 사업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동부권역 대학과 시·군 간 협의체 운영 방안과 대학-지역 동반성장 프로젝트(RISE 시범사업) 사업 계획서 작성을 위한 대학 특화분야 및 지역 현안 발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현민 순천대학교 기획처장은 “동부권역 대학과 시·군 간 협의체 구성으로 지역과 대학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